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자긍심 높인다

고창군, 동학혁명 홍보관 5월 준공 사업비 5억여원 기부금으로 마련 혁명정신 알리고 역사 교육장 활용



고창군이 고향사랑기부금을 통해 건립을 추진 중인 동학농민혁명홍보관 조감도.

고창군이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해 도시 중심에 동학농민혁명홍보관 건립한다.

지역의 자긍심인 '동학농민혁명 발상지'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로 지역발전의 염원이 담긴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해 의미를 더하겠다는 취지다.

고창군에 따르면 오는 5월 준공을 목표로 군정 맞은편에 '동학농민혁명 홍보관 리모델링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총사업비 4억9000만원은 2023년부터 2년여간 고창에 기탁된 고향사랑기부금이 사용됐다.

군은 2023년 6억4400만원, 2024년 6억9300만원 등 전국 최고수준으로 기탁된 고향사랑기부금의 활용방안을 놓고 고민해 왔다.

기탁식에서 만난 재외군민들과 각종 모임, 기업인들 중에는 "고창출신과 지역 주민들에게 희망의 정신을 되살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심덕섭 군수는 도시 중심에 '동학농민혁명홍보관'을 세우고 언제나 대한민국의 역사를 주도했던 고창인의 정신을 알려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지난 2023년 5월 동학농민혁명의 대의명분을 알린 '고창 무장포고문'이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면서 이를 기념할 공간의 필요성도 그 이유가 됐다.

군은 홍보관 부지 앞 '전봉준 장군 동상', 군민모금 '평화의 소녀상', 조선시대 19개 군현의 협동으로 쌓은 '모양성'까지 주변에 있어 고창이 가진

역사성의 교육 현장으로 더할 나위 없을 공간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동학농민혁명홍보관은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고창의 정신과 정체성을 상징하는 장소로 활용될 것"이라며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인 기부금이 바로 그 역사와 정신을 지켜내는 데 쓰이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남원 마을기업 2개소 '고도화 사업' 선정

(주)비준양조·영농조합 야미...메뉴 개발·포장 패키지 개선 등

남원시는 지역 마을기업 (주)비준양조와 영농조합 야미가 2025년 행안부 마을기업 고도화 단계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고 27일 밝혔다.

마을기업은 주민이 각종 지역 자원 활용의 수익 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일자리 창출로 공동체 이익을 실현하는 마을 단위 기업을 말한다.

금지면 소재 비준양조는 폐정미소와 농협창고를 리모델링해 마을카페와 식당을 운영하고 수제 맥주와 전통주를 생산하는 마을기업이다.

비준양조는 주민들이 재배한 벼를 연간 50톤 도정해 깃바위 화동쌀·고소미로 브랜드, 도시 소비자들에게 판매 중이다. 또 남원 대표 명주인 프리미엄 탁주 비준술과 42% 쌀 증류주 화동원을 만들어 공동체 수익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 특산물인 백향과를 첨가해 맛과 향이 풍부한 백향과 막걸리를 선보이기도 했다.

다. 전국 각지에 도·소매처를 확보, 꾸준히 판로도 넓혀가고 있는 중이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연간 800여만원의 마을 운영자금도 기부하는 등 지역사회 공헌에도 앞장서고 있다.

주천면 소재 영농조합 야미는 2021년 팜스테이 마을로 출발해 발효빵과 떡을 생산 중이다. 마을에서 재배한 밀과 쌀, 고구마 등을 활용한 건강 배이커리 체험으로 관내 중학교 자유학기제 수업도 연중 진행하고 있다. 인근 중고교 및 지역아동센터에 장학금을 지급하고 80세 이상 마을 노인들에게는 노령연금도 지급하고 있다.

이번 고도화사업을 통해 총 4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비준양조와 영농조합 야미는 신메뉴 개발과 함께 포장 패키지 개선 등 제품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갈 방침이다.

한편 남원시 관내에는 마을기업 10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남원 읍동지구 '농촌공간정비' 본격화

내년까지 50억원 투입 행복주택·실습농장 조성 등 추진

남원시가 아영면 읍동지구를 대상으로 '농촌공간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남원시는 지난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선정에 따라 기본계획이 수립됐던 아영면 읍동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에 오는 2026년까지 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공모사업으로 농촌 지역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재구성하고 생활인구를 유입시키며 지역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사업은 우선 귀농귀촌인의 초기 정착을 돕기 위해 예비 귀농귀촌인 대상 행복주택 5개소 신설과 실습농장 조성을 추진한다. 이어 이



남원시의 농촌공간정비사업이 본격 추진될 아영면 읍동지구.

존 마을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마을 안길 정비, 마을 숲 및 마을 쉼터 조성 등이 추진해 주민 생활 편의성 향상 및 지역 공동체 결속력 강화를 도모한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정읍시 '시민 삶 개선' 을 603억원 집중 투입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범위 확대 영유아 발달·청소년 심리 지원 등 17개 분야 생애주기별 맞춤 정책



지난해 11월 '따뜻한 겨울나기 사랑의 연탄나눔' 행사에서 이학수 정읍시장과 박일 시의회 의장, 김철수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등이 봉사자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 있다. <정읍시 제공>

정읍시가 올해 복지분야에 603억원을 집중 투자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도시 구현에 힘을 쓸 예정이다.

정읍시는 소외계층 보호부터 자활 지원, 의료급여 강화, 국가유공자 예우까지 세심한 정책을 추진하며 지역사회 전반의 복지안전망을 촘촘히 다지겠다고 1일 밝혔다.

우선 올해 시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범위가 크게 확대한다. 중위소득 기준 및 자동차 소유기준, 부양의무자 연소득 및 재산 기준 등이 완화됨에 따른 조치로 덕분에 복지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던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수급 탈락가구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긴급복지와 민간지원 등 다양한 연계 체계로 보호할 예정이다.

복지 위기가구 발굴에도 적극 나선다. 이·통장, 생활지원사, 시설종사자 등 시민 1419명을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해 촘촘한 복지망을 구축한다.

지난해 시는 긴급 생활위기가 2100가구에 18억 3000만원을 지원했고 '행복나눔공유생장고'를 내장상동 등 4개 동에서 운영하며 총 4억9000만원

상당의 기부금을 모아 총량기준 6만3729세대에 나눔의 온정을 전했다.

자활근로사업과 정읍지역자활센터를 중심으로 한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 역시 핵심 복지정책 중 하나이며 청년내일저축계좌 등을 통해 282명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고 있다.

영유아 발달지원,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장애인 안마서비스 등 17개 분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은 시민들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도 시의 맞춤형 의료급여 서비스로 한결 가벼워졌다. 올해 총 32억원을 투입해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국가유공자를 위해서도 호국보훈수당 2만원 인상했으며 도내 유일의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25가구의 주거시설도 개선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사망위로금과 명절 정읍사랑상품권 복지수당 지급, 보수교육과 국내연수, 상해보험 지원까지 국가유공자를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 중이다. 시민들의 이웃사랑 자원봉사 사업에도 5억700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봉사자들의 상해보험과 표창 특히 재능나눔축제 등을 지원한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고창군, 6월까지 복지대상자 확인조사

고창군이 오는 6월 30일까지 3개월간 2025년도 상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상·하반기 연 2회 시행되는 확인조사는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다.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13개 복지사업의 대상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 재산 등을 살핀다. 142개 금융기관 및 21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소득재산자료 65종을 바탕으로 수급 여부 등을 다시 확인하게 된다.

자격과 급여 변경 예상자는 사전에 통보해 충분

히 소명할 기회를 주고, 고의나 허위신고 등 명백한 부적정,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부당하게 지급된 급여에 대해 전액 환수 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밖에 가족관계 기피, 해체 등으로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속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구제한다.

복지급여 탈락자 중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긴급지원 및 전폭형 생계급여 및 공적지원이 가능한 부분을 적극 연계해 복지수급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데크의 세대교체!”



품질보증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 KIBO | 02-51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